



소리꾼 이지람의 '노인과 바다' 공연이 지난 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렸다.

“헤밍웨이가 그린 ‘노인의 사투’에서 용기 얻기를”

“나는 왜 너를 죽여야 할까, 죽이지 않고 이길 수는 없을가/우리는 늘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기다리는 것들은, 결국은 나타날까”

지난 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소리꾼 이지람이 '노인과 바다'를 선보였다.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를 판소리로 재창작한 이번 무대는 노인 산티아고와 그가 생업을 꾸리는 바다를 중심으로 약 120여분간 펼쳐졌다. 1막에서는 노인이 깊은 바다로 나가 다랑어와 거대한 청새치를 잡고 이들을 꼬박 겨루는 모습을, 2막에서는 상어떼의 습격으로 인해 힘들게 잡은 청새치를 다 잡아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려냈다.

어린 시절 “예술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로 유명한 노래 ‘나이들’을 불렀던 이지람은 대학에서 판소리를 전공한 정통 소리꾼이자 아마도이자 밴드의 보컬, 뮤지컬·창극·연극 등의 음악감독, 각색가, 작곡가, 배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전방위 예술가다. 그녀와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씨는 “7월에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가 한차례 취소되었던 광주 공연이었다”며 “광주에는 존경하는 소리꾼 분들이 많다. 광주에서 내가 직접 만든 판소리 작품을 올리는 것은 정말 크고 깊은 기쁨인데, 그것이 한번 취소 되고 나니 더욱 아쉽고 그리운 공연이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10살 때 판소리를 시작, 은희진·오정숙·송순섭 등을 사사했으며, 서울대 국악과 학사, 서울대 대학원 국악과 석사를 졸업했다.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과 ‘역적어멈과 그 자식들’을 판소리로 재구성한 ‘사천가’와 ‘역적가’를 비롯해 ‘이방인의 노래’, ‘추물/살인’ 등의 작품으로 활동했으며, 희곡이나 근현대 소설을 판소리의 다양한 소재와 형식으로 개발하는 작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수 많은 책 중 특히 소설을 좋아한다는 그는 소설 ‘노인과 바다’를 읽고 “아, 이게 내 작품으로 새롭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 씨

‘예술아’ 주인공... 10살 판소리 시작
브레히트 희곡 등 판소리로 제작
인디밴드 보컬·음악감독 등 활동
“관객들 공연 참여 함께 호흡·공감”

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드는 건 아니지만 마치 낯선 대를 내려놓고 한참 기다리던 중 대어를 낚는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노인과 바다”를 읽자마자 어떤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작업하기 시작했죠. 노인이 청새치를 만나고, 사투를 벌이고, 결국 승리하지만 청새치를 다 잡아먹히고 마을로 돌아오는 이 2박 3일의 거대한 사건이 사실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겪는 크고 작은 사투와 같기를 바랬어요. 물론 엄청나게 큰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이 인생에 딱 한번 온다고 하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이 사건을 앞으로도 계속될 노인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인 것처럼 마무리 짓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녀는 이번 광주 공연을 앞두고 매일 ‘노인과 바다’ 전막을 홀로 연습하면서 스스로 힘을 얻었다. 연습을 하면서 보니, 노인은 계속 기다리고, 버티고, 지치지 않고, 꺾이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더라는 것. 그는 “코로나 19로 많은 것이 멈추고, 마비되고, 취소되는 시대에서, 노인의 모습을 보고 많은 힘을 얻었고, 관객들로 하여금 공연에 참여하게 하면서 이러한 힘을 나누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래서 공연을 시작하면서는 판소리와 추임새를 낮설어하는 관객들에게 ‘얼씨구’, ‘좋다’, ‘잘한다’, ‘음~’ 등의 추임새를 소개하기도 했고, 마을 사람들이 노인 산티아고를 칭찬하는 대목에서는 자진모리장단을 넣어 관객과 함께 손뼉을 치며 다

시 불러보는 등 관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함께 호흡했다. 특히 깊은 바다 심연을 묘사하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에게 휴대폰 플래시를 활용, 불빛을 흔들게 해 함께 바닷속 모습을 만들어나갔다.

사실 희곡이나 소설 등을 판소리로 재탄생 시키는 작업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꾸준히 도전하는 이 씨는 “내 삶과 무의식, 의식과 가치들 사이에서 수많은 고민을 하며 ‘왜 이 작품을 판소리로 하고 싶은가’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잘 보내야 무대 위까지 무사히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며 “작품을 무대에 올렸을 때 관객들이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공감해줄 때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소리꾼으로 관객과 만나는 순간에 대해 “정말 귀하고 놀라운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음악감독, 각색가 등으로 일할 때는 작업과정이 바쁘고 힘들지만 무대에 오르는 공연을 볼 때에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반면, 소리꾼으로 무대에 설 때는 체력관리, 이야기 전달 등으로 인한 부담도 많지만 이 씨 자신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강렬한 일이라는 것이다.

“소리꾼으로 공연을 앞두고 다른 일에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담과 예민함이 무대에 서서 관객을 마주하는 순간 갑자기 기쁨으로 변해서 나무가 가지를 뺀 나가듯 저도 모르는 곳으로 퍼져 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코로나 19로 국내·외 여행이 어려운 시기,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코로나로 해외일정들이 모두 취소됐어요. 앞으로 가까운 미래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올해, 남은 시간동안은 책을 많이 읽을 예정이에요. 최근 셰익스피어 비극집을 새로운 번역본으로 구매했고, 지금은 파블로 네루다의 자서전을 읽는 중입니다. 책 속의 넓은 곳으로 여행을 하다 보면 또 좋은 고기를 낚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게 되겠지요.”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무등산 그리고 제주도’ 앵글에 담다

박정우 전, 30일까지 고운선갤러리

박정우 사진 작가는 무등산을 수도 없이 오르내렸다. 그의 앵글에 담긴 서석대의 주상절리, 화산 한 철쭉과 어우러진 입석대, 새하얀 눈꽃이 핀 서석대의 절경 등 아름다운 무등산의 사계는 인상적이다.

뇌병변 장애 2급인 박 작가가 처음 카메라를 메고 무등산에 오른 건 지난 2012년 7월이다. 서석대 정상에 선 그는 눈앞에 펼쳐지는 장관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기묘묘한 주상절리의 매력에 빠졌다.

이후 수백차례 무등산에 오르고, 무등산 뿐 아니라 전국 주상절리를 카메라에 담은 작업도 이어온 그는 ‘무등산과 주상절리의 맛’, ‘주상절리 그리고 무등의 꿈’을 주제로 두 차례 개인전을 열고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왔다.

오는 30일까지 광주 고운선갤러리(광주시 서구 풍암순환로128번길 23)에서 열리는 세번째 개인전 ‘무등산 그리고 제주도’ 역시 무등산의 사계가 주가 되는 전시다. 특히 이번 전시는 ‘무등산’ 하면 떠오르는 고(故)박선홍 선생의 무등산 사랑을 기리고, 그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기획했다.

전시작은 최근 4년간 촬영한 무등산의 다채로운 사계와 제주도 용머리 해안 등 아름다운 제주 풍광 사진과 주상절리 사진 40여점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붉은 단풍,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무등산의 만추’ 작품은 편안함을 전하며 파도가 부서지는 제주도 해안가 풍경과 일몰은 위안을 준다.

광주일고를 졸업한 박 작가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캠프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부전공으로 사진을 배웠다. 문의 010-7175-0089.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 만추’

화폭에 실은 자연·일상... 20년만의 첫 개인전

김찬희 전, 30일까지 예술공간 집

서양화가 김찬희 작가가 대학 졸업 후 20여년만에 첫번째 개인전을 열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지난 1998년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남부미술제 등 몇몇의 단체전에 참여하고, 20년 동안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자신의 작업에는 좀처럼 매진하지 못했다.

오는 30일까지 예술공간 집(광주시 동구 제봉로 158번길)에서 열리는 첫번째 전시를 준비하며 김 작가는 오롯이 자신의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해 낼 수 있다는 생각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이번 전시에서 그가 선보이는 작품은 자연과 일상의 이미지를 그린 것들이다. 늘상 함께 해온 다채로운 식물의 모습, 가족의 모습 등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눈길을 끌며 일상의 소소한 시간과 사건들, 그리고 순간순간 변화하는 감정도 화폭에 담았다.

무엇보다 화산이 꽃그림이 눈에 띈다. 생생한 색채감이 돋보이는 아크릴 작품들은 생동감을 전하며 추상의 느낌을 가미한 꽃그림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꽃이 I’

뒤늦은 출발인 만큼 더 용기가 필요했고, 망설임도 있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작업하며 작은 성취감을 얻었다는 김 작가는 그림을 그리며 자신이 받았던 위로와 위안을 관람객들도 느끼길 바란다고 전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광주·전남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